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실천 다짐 대회’

충북사회복지협 · 한국사회복지협 · 주민자치회 공동 주관

전국 최초 충북서 대회 진행...250여명 함께 결의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 이하 충북도협의회)는 3월 14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충북 주민자치회(회장 나기정)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가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 울산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면서 전국 최초로 진행된 결의 대회다.

이번 대회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하여 충북 시 군 협의회, 희망복지지원단, 좋은 이웃들, 1004지역사회봉사단, 베이비부머봉사단, 충북도협의회 연합봉사단, 충북도 내 대학 자원봉사자 25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결의를 다져 더욱 뜻 깊은 대회가 이뤄졌다.

김창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다짐 대회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의 결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장선진(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봉사대원과 이정주(괴산군청 희망복지지원단) 주무관이 좋은이웃들 봉사단 선서를 하고 있다.

발달장애 가족 5월 힐링캠프 떠난다

보건복지부 600명 대상 1박2일 여행 마련...교류 활성화

최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의 동반 자살 등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을 위한 캠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충남 천안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힐링캠프를 실시하는 등 연내 600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캠프는 발달장애 자녀 보육에 지친 부모를 위로하고 부부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캠프 참여자를 모집해 올해 안에 4~5차례 가량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5월부터 발달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문제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도구들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의 연내 통과에도 힘을 기울인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발달장애인은 모두 17만 163명으로, 이 중 지적장애가 17만 3000여명, 자폐성 장애가 1만6900여명이다.

차상위계층 기준 제각각 복지혜택 ‘발목’

도내 2만 1천가구 3만 4천명
정방양구 확인지원 16%불과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시급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중 자녀양육비, 난방비,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들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180% 이하의 한부모 가구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 등으로 대상자가 세분화될 때 최저생계비 기준마저 사업별로 제각각 운영돼 일성 시군의 대상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통합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분야 사업도 마찬가지다. 도내 저소득장애인 생활 안전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1만5천153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천212명, 차상위계층(120%) 6천941명이다.

성장기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 지원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는 1천 415명으로 지원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다. 시청각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인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의 대상 가구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이다.

전국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특색이 있는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말 기준 2만1천151가구, 3만4천314명에 달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4만6천372명을 포함하면 8만여명의 도민들이 복지 대상자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기준이 복잡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전국 가구 평균소득 도시 가구 평균소득일정금액 소득 분위 기초 차상위 자격 기준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처럼 복잡한 선정기준 때문에 혜택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들조차 세부 지침을 찾아보지 않으면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김춘길 주필 위촉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0일 김춘길 이사를 충북사회복지신문 주필로 위촉했다.

김춘길 주필은 전 충청일보 편집부 국장 겸 실장, 중부매일 편집국장, 충청일보 주필, 세종데일리 주필 등을 역임했으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임부회장,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맡아 활동하는 등 사회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김창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 언론계의 대표적 어른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최고의 지식을 갖춘 김춘길 이사를 주필로 모시게 된 것은 사회복지계의 영광이라며 충북사회복지신문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주필은 사회복지 분야는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지금은 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며 그동안의 언론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999년 2월에 창간해 매월 1회 발행하는 사회복지



김춘길 주필과 김창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이 충북사회복지신문 위촉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야 전문신문으로 지역 사회복지계의 소식은 물론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정보의 전달과 홍보, 전문가 칼럼, 시론, 복지진단 등을 게재해 도민들의 복지인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푸드뱅크 등 나눔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충북사회복지신문의 구독자는 충북 도내를 비롯, 전국 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충북융합복지연구소 출범 서정민 연구소장 위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는 3월 24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전 건국대학교 서정민 교수를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융합복지연구소장으로 위촉했다.

서정민 교수는 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단장,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 정책 전문위원, 충청북도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마르퀴즈 후즈 후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왔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구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세계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곳이다. 이날 서정민 교수 위촉과 함께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부설로 운영하게 될 충북융합복지연구소의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충북융합복지연구소는 앞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은 물론 사회복지와 정보



김창기(오른쪽)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과 서정민(왼쪽) 전 건국대학교 교수가 충북융합복지연구소 출범 및 연구소장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복지시스템 구축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중부권 최고의 로펌 **청주로**! 7명의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CJ LAW 공중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CHEONGJU LAW

청주의 법률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박종일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 변호사 명지성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7층(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 043-290-4000(대표전화) F.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 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 공증 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현대적 효 운동 확산 추진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자광재단·한국효사상연구소 협약식 효행장려, 지원 조례제정-복지공동체 구축도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孝道)는 인간의 백가지 행실 중 근본(百行之本)이라고 했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효도의 덕목이 산업사회, 핵가족화 등 사회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퇴색, 가정과 사회 등에서 많은 부정적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이를 사회복지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사장 정구훈) 및 한국효사상연구소(대표 성규택)는 4월 1일 충북사회복지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갖고 현대적 효(孝) 문화 확산과 복지공동체 구축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효와 복지 집복을 위한 공동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지 원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제공, 교 류 효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효문화진흥원,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지원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 기타 효행 장려 관련 업무 협력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또 2007년 제정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충북과 제주에만 제정되지 않고 있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북에서도 제정·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창기 총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의 확산을 통해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과 복지공동체 구축 등에 총사회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회장(충북사회복지협의회), 성규택 교수(한국효사상연구소 대표), 정구훈 이사장(자광재단)이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한 성규택 한국효사상연구소 대표는 가치규범으로서의 효가 현실에 맞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규칙·규약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효의 현대화 작업에 총사회협이 앞장서 타 시

“아름다운 세상, 감동 주는 행복사회 추구”

인터뷰 정구훈 자광재단 이사장

저출산 고령화 대처 사업 전개 전 분야 걸쳐 모범기관 목표



은 설립자의 자녀들이 아닌 사회복지자를 전공한 후학들에게 재단이 승계되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점이다.

자광재단의 경영 이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광재단 이념은 아름다운 세상, 감동을 주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인간중심의 복지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이 존중되고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종교·이념을 초월한 순수 사회복지 전문법인을 지향하고 있다.”

자광재단 경영방식은? 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중시한다

충북 영동이 고향인 정구훈(鄭求勳) 제6대 자광재단 이사장(68, 1급사회복지사는 청주중·청주고(37회)를 거쳐 1970년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과거 민정당 서울시부 부국장과 민자당 충북지부 사무처장 등 10여년 간 정당생활 과정을 거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정 이사장은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자원봉사자협의회 등 3곳의 사무총장 직을 역임한 특이한 경력 을 갖고 있다.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는 현재 한국노년학회 이사 등 여러 사회복지기관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德光財團)을 맡게 됐다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는 등 한국사회복지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저 하삼당 교수를 주축으로 뜻을 같이한 여러 전문가와 후학들이 1955년 7월 28일 설립한 재단이다. 자광재단의 특징

다. 임원의 전문성과 복지수요자를 최우선 고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사회복지의 절대가치인 자유·평등·박애·정의실현을 재단총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영유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대표적 모범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사업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자광재단 시설 편여 현황은 어떤가

육원군노인장애인복지관, 육원장애인보호작업장, 산동촌형다목적커뮤니티센터 어울미를 비롯 서울 강남CRS(6개), 강북CRS(5개), 전북CRS(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전국에서 16개 사회복지기관에 관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 지방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군구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학원에 보내 사회복지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 공무원들이 대학원에 가면 대개 행정학을 전공하는데, 공무원 생활 20년 하면 사실상 행정학 박사라 되는데 왜 또 행정학을 배우는가. 일반 행정학 대신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업무가 향상될 수 있다.

<김춘길 주필>

보은군 안정·풍요 담은 노인복지 ‘박차’

어르신 700명에 돌봄 서비스 제공

보은군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며 노인복지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30일 군에 따르면 7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00명에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해 1억1천555만원 을 발간한 배달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급식을 위해 경로식당 3곳에 1억1천150만원 을 지원한다.

경로식당은 보은무료급식소, 죽

전무료급식소,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3곳으로 60세 저소득 어르신들은 주 중 점심 때 이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에 있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로 군인 노노케어, 환경정화, 행복자키미 등 일자리를 마련해 674명에게 제공했다. 전국 최초로 11개 각 읍면에 설치된 노인복

지대학에서는 노인들이 노년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 올해는 총 855명이 노인복지대학에 입학했다.

이 밖에도 25개소 경로당 개보수로 1억5천만원 을 지원하고, 27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냉 난 방 비, 양곡비로 7억9천만원 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동군 ‘다문화가정 손잡고 함께가요’

조기 정착 비용 4억원 투입 언어·교육·문화 등 지원책 마련

영동군 다문화가족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지난해 말 기준 1002명으로 전체 인구 5만539명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지난 2010년 735명,

2011년 769명, 2012년 841명, 2013년 100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및 융화를 위해 4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언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

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 족 상담 취업지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이곳에서 특성화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펼쳐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향상과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고향 방문에 필요한 항공료·체류

보령료를 지원하는 친정나들이사업 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9가정이 친정을 방문했으며, 올해도 7가정이 친정나들이 혜택을 받는 다.

이밖에 다문화가정자녀 장학금 지원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도사 지원 다 문화 가정 국제특송요금 지원 자동차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도 연중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남으로 예상된다며 다문화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의 인권·복지증진 ‘앞장’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지원협약식

지난 4월 2일(수) 오후2시 사단법인 충북연회 희망봉사단(단장 안병수)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사무처장 정승희)와 함께 충북연회본부에서 이주지원협약식을 가졌다.

희망봉사단은 사랑의 집짓기, 사랑의 반찬나누기, 재난구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등 충북도 내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사랑의 집짓기는 매년 2-3가정 주거취약 계층을 추천받아 선별해 주택

신축 및 개축 등으로 기증하여 올해 18호가 진행 중에 있다. 사랑의 반찬나누기는 매주 수요일 목가노인 및 장애인 140여 가정에 밑반찬을 전달하던 것이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도에 희망봉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유공(물적나눔) 표를 수여 받았다.

희망봉사단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이번 협약식은 희망봉사단 복지사업 중 다문화지원 사업

의 일환으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과 소수자로서의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과 복지 증진에 상호협력하여 앞장서기로 했다.

정승희 사무처장은 이주여성은 신체적으로도 남성에 비해 약자 라며 어리고, 외소한데다가 언어 소통에도 미숙하여 억압과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며 이번 희망봉사단의 지원과 협약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돈 안드는 착한나눔 재능기부 ‘눈길’

괴산 명덕초 - 자주감자 동아리 동화구연 프로그램 운영 협약

재능기부, 착한기부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가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본인들의 재능을 교육에 헌

신하는 아름다운 교육기부가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괴산 명덕초는 지난 3일 괴산명덕초 연구실에서 괴산도서관 동화구연 동아리 자주감자와 함께 동화구연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

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희 학교장, 자주감자 회원들이 참석했다.

자주감자는 지역도서관 괴산도서관의 동아리로서, 퇴직교원 등 지역인사로 이루어졌다. 성립초기부터 교육 소외지역을 순회하며 주

적으로 아동극, 동화구연 등을 제공 해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인지도 역시 상당하다.

이상희 학교장은 작년도 동화구연이 학부모와 아동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때문인지 올해도 흔쾌히 교육기부를 해주기로 하셨다. 올해에도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충주양성적십자회 세탁봉사

충북 충주양성적십자회(회장 최기숙)의 세탁 봉사활동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과 장애인 가구가 새 봄맞이를 준비를 마쳤다.

양성 적십자회회 회원21명은 2

일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이불과 옷 세탁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세탁봉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서 세탁차량 1대

5, 세탁기 5대 보유와 양성 119 안전센터에서 급수차량을 지원받았다.

이날 회원들은 세탁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들과 장애인 40가구를 방문해 이불과 옷가지 등을 모아 깨끗이 세탁했다.

우리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1004지역사회봉사단을 모집합니다.

☆구성 및 활동

- 의료, 문화, 교육, 상담, 벽화, 노력봉사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연 4회 이상 활동

☆지원

- 맞춤형 봉사활동 제고
- 봉사활동 소요 물품 구입비
- 문화·예술 공연 무료 관람 지원(복지넷)

1004지역사회봉사단이란? 단체(동아리)가 가진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관, 시설 및 재가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문봉사단이다.

☆ 위촉신청

- 온 라 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cwin.or.kr) → 자원봉사 → 자원봉사활동 → 참여신청

- 오프라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방문 및 전화 신청

☆ 관련문의

- 전화번호 : 043)234-0840~2

- E-mail : chungbukcody@gmail.com

- 담당자 : 한아름 코디네이터

홀몸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함께하는세상-충주 지현동주민센터 업무협약 체결

충주시 지현동주민센터(동장 박종선)가 28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예비사회복지기업 (주)함께하는세상(대표 이한순)과 홀몸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한순 대표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현동 관내 홀몸 어르신들의 행복생활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민간 협력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감사하게 사뭇다고 말했다.

이한순 대표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현동 관내 홀몸 어르신들의 행복생활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민간 협력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감사하게 사뭇다고 말했다.

이한순 대표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현동 관내 홀몸 어르신들의 행복생활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민간 협력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감사하게 사뭇다고 말했다.



충주시 지현동주민센터(동장 박종선)가 28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예비사회복지기업 (주)함께하는세상(대표 이한순)과 홀몸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음성 대소초- 장애인복지관 '행복출동' 협약

1대 1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일 환 인식 개선 도움

음성 대소초등학교(교장 조원준) 특수학급과 음성장애인복지관이 지난 3월 1대 1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협약은 학교장, 특수학급교사 2명, 음성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소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이루어졌다. 행복기차단 행복출동은 특수학급 학생과 통합학급 학생이 1대 1 친구를 맺어 특수학급 학생들의 안

진천서 치매노인 실종예방 전력

진천경찰서는 31일 실종전력이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사진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진천경찰서는 31일 실종전력이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사진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지문·사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지체장애인과 치매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18세 미만 아동 중심으로 이뤄져 치매노인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찾아가는 사랑의 나눔 실천"

제천명지병원, 홀몸노인 어르신 등에 의료 지원
명지의료재단 제천명지병원(원장 하영수)이 지난 28일 연춘면사무소에서 지역 농업인과 홀몸노인, 어르신 이웃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명지병원 하영수 원장을 비롯한 의사 4명, 간호사 5명, 검사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전문 의료진



2일 꽃동네대가 식목일을 앞두고 아름다운 나무, 풍경속의 캠퍼스 라는 주제로 이원우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캠퍼스 일대 나무를 심고 있다.

급여 1%로 기부로 큰 희망 되다

K-water 충청본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기부
K-water 충청지역본부는 2일 본부 상황실에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48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금은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월 급여의 1%를 적립해 마련한 봉사량 나눔펀드로 실시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지역 내 저소득 가정학생 4명에게 연간 120만원 씩 지급될 예정이다. 충청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임직원 기금을 모아 34차례에

아름다운 나무, 풍경속의 캠퍼스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행사
꽃동네대학교(총장 이원우)는 식목일을 앞둔 4월 2일 아름다운 나무, 풍경속의 캠퍼스 라는 주제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원우 총장을 비롯하여 교수, 직원 및 학생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영산홍 100주, 철쭉 100주, 소나무200주, 고로쇠 200주, 편백나무 100주 등 총 700여주의 나무를 캠퍼스 일대에 심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사무소 직원 5명도 함께 참여하여 나무심는 방법과 관리방법 등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꽃동네대학교는 2009년 산림청과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전국네트워크 조성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식목일을 전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행사에 사용되는 나무는 매년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충북도 정원서 위기 청소년 돕기 '나눔 장터'

수익금은 상담치료 등 지원

직원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충북도청 본관 앞 정원에서 지난 27일 장이 열렸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아름다운가게 신봉점이 차린 나눔 장터였다. 위기 청소년을 돕자는 취지이다.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은 2010년 1천455명, 2011년 1천578명, 2012년 1천605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두 단체는 수익금의 절반을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데 돌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 학업 중단한 도내 청소년들로 병원 진료나 상담치료, 학비 등을 지원한다. 충북도 역시 나눔장터 개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날 장터에서는 도내 공공기관 임 직 원 과 시민이 기증한 의류와 도서, 잡화,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다. 나눔장터를 방문한 한 시민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고 이 돈이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후원이 된다니 기쁘게 두 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최선"

충북아동복지협회, 실무자 교육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연숙)는 지난 3월 5일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에서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실무자와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이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대화법-감정조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실시되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아동과 소통하는 대화법을 익히고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 및 문제행동을 이

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주 양육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이 사업은 2014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사업으로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가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생활 중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 아름다운 녹색도시 공간 조성

18억 들여가로수 꽃화분 등 설치 포토존도 만들어

단양군이 올해 18억을 들여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올해 5억8천만 원을 들여 단양읍과 영춘면 도로변에 밝나무 마가목을 심는다. 또 매포읍 시가지를 비롯해 국도 5호선과 59호선 주변의 가로수를 정비한다. 도로변 빈터는 꽃과 의자 등으로 작은 쉼터를 만들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의 경우 가지치기 작업도 실시한다. 매포읍 우

택리에는 산림청 공모사업 기금 4억 원으로 녹색나눔 조성사업을 펼친다. 이곳에는 큰키나무(묘목), 뿔기나무(관목), 풀꽃을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4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군은 2억6천만 원을 들여 관광객이 즐겨찾는 단양 소규모 공원과 도담삼봉, 고수·상진대교에 3단 꽃화분과 화분을 설치한다. 각종 행사장에 연중 꽃을 생산 공급하는 매포읍 어의관리묘포장의 진입로도 1억 원을 투입

해 정비한다. 군은 1억2천만 원을 들여 황정성과 보타산에 로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느림보 감돌길 등 트레킹 코스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1억 원을 들여 여성친화 일대 소나무 군락지에 어린나무를 심어 명품 숲 조성사업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이제부터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관광단양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사계절이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맘흔려 배운 기술로 기능재부

충북기능선수회 보은서 봉사 활동 농기계수리·이·미용 등

(사)한국기능선수회충북지회가 25일 보은 회원사무소에서 농기계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맘흔려 배운 기술을 이웃에게 환원하는 값진 봉사로 일종의 재능기부인 셈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국폴리텍IV대학 청주캠퍼스 학생들이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보건과학대학교, LG전자서비스센터,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예일미용고등학교, 한국미용기능장회 충북지회 등 5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가전제품수리에서부터 농기계수리, 이·미용, 시계수리, 사관침, 전기점검, 자동차점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회원초등학교, 회원중학교 학생 7명에게는 컴퓨터를 기증했다. 특히 노인 1가정에는 도배서비스를 실시하고 마을별 최고령자 10명의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덩으로 액자를 만들어 제공했다. 최인우 회장은 회원면을 찾아와 주민들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충북적십자사 무료급식 봉사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회장 성영웅)는 15일 오후 12시, 청주 중앙공원에서 매그나칩 반도체와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점심나누기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급식봉사는 매그나칩 반도체 후원금으로 준비하였으며, 조남원 충북적십자사무처장, 김기현 충북적십자봉사회 상무지휘부의회장 등 양사 직원 60여명 및 적십자봉사원 30여명이 서로 협력하여 6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다.

얼른정성이 넘치는 세상을 원하시나요?

베이비부머봉사단에 참여하세요!

■ 베이비부머봉사단 활동 소개

베이비부머봉사단이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 및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50대 연령층 대상 봉사단입니다.

■ 신청대상
55~63년생(±52~66년생 포함) 개인 및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각종 단체나 모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봉사활동
연중(월 2회 이상 권장)

■ 신청절차
vms.or.kr 홈페이지에서 '베이비부머봉사단 위촉 신청서'를 다운받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이메일 혹은 팩스(신청서 참고)로 접수 / 이메일 : cpcsww@chol.com, 팩스 : (043)234-0849

■ 혜택
① 재가봉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지원
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③ 우수 봉사단체의 경우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④ 우수 봉사단체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 무료 관람 기회 제공
⑤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

구분	봉사활동내용
재가봉사활동	· 사각지대 저소득 노인 ·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봉사팀별 1~2가정 봉사) · 정서지원, 청소, 빨래, 설거지, 식사보조, 밀반찬 배달 등
전문봉사활동	· 전문·기술·기능 중심 소외계층 가정방문 재가봉사활동 · 보건의료봉사, 법률 봉사, 접수리, 이미용봉사, 해충 방제, 옥내 전기 · 가스안전점검, 전기·전자제품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베이비부머봉사단 참여 신청 안내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한아름 코디네이터 ☎ 043)234-0840~2



“터치로~ 사랑으로~ 함께 걸어요”

‘치매·중풍 예방’ 제1회 도민걷기대회 어르신·장애인·시민 등 2000명 참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걷기 대회는 치매 중풍 인식개선과 예방 및 조기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심의보)에서는 3월 27일(목) 오후 2시에 무심천블러스케이프장에서 충북도내 어르신, 치매환자가족, 대학생, 어린이, 장애인, 일반시민 등 약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 중풍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제1회 도민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도민걷기대회는 치매 중풍 가족과 함께하는 대학생스포츠팀 활동선서, 가리사니 협동조합의 치매예방프로그램 체험 및 창의 두뇌개발 훈련, 충북광역치매센터의 치매 중풍 예방 및 관리 정보제공, 청주상

당홍덕보건소의 치매선별검진,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충북노인복지관의 노인권익증진을 위한 홍보캠페인, 청주상당홍덕경찰서의 치매노인 사전등록 홍보캠페인, 제천시니어클럽의 노인생산물 전시 및 판매, 포토존, 예일미용고등학교의 페이스페인팅, 문화예술창작센터의 공예체험 등 치매 중풍zone과 패밀리zone이 다채롭게 운영되어 1~3세대 모두가 하나 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커다란

리코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조금 더 밝은 우리 사회를 기대하게 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역명소인 육영수여사 생가, 정지용시인 생가 등 지역명소 방문 뿐 아니라 딸기밭 체험 등 정신장애인의 병소 체험 및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 및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총 40명이 참여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주간적으로 방문하여 지역사회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우울자살의 도를 가진 노인의 조기발견과 케어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인자살의 심각성과 노인우울에 대한 이해, 노인인사살예방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재가어르신 가정

에정이다. 교육 후에는 청주시 흥덕구 내 재가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외감 및 우울증 등을 예방하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랑나눔 생명보듬이 교육은 4월 18일(금)까지 접수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가경노인복지관(043-236-0111)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정신장애인·가족 ‘행복한 여행’

진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명소 탐방 행사 가져

진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장현정)는 지난 25일 정신 장애인

을 위한 입소시설 탐방을 충북 육

군 정신보건증진센터 회원들을 위한 지역명소 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나들이 기회가 적은 정신 장애인에게 재충전의 기회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보호자들의 요청에 마련했다. 장소 선정은 최근 설립된 정신장애인 입소시설인 별들 및 근처 지

노인 자살·우울 해소에 팔 걷어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사랑나눔 생명보듬이 교육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강신옥)에서는 노인자살예방 상담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보호 강화를 위해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사랑나눔 생

명보듬이 교육을 실시한다. 사랑나눔 생명보듬이 교육은 노인자살예방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재가어르신 가정

충주시노인복지관 남부분관 개관식 가져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법인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지회장 홍병호)와 충주시노인복지관(관장:김웅)의 위탁 운영되는 남부분관은 3월 18일 11시 지역 어르신 및 주민 등 800여명과 내빈 참석 아래 개관식을 가졌다. 충주시노인복지관 남부분관은 총 72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4천 418㎡ 부지에 연면적 3천363㎡ 규모로 본관동 지하1층과 지상2층, 부속동 게이브빌딩과 관람식으로 건립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준공식을 가졌다.

지하 1층은 탁구장, 당구장, 체력 단련실, 미용실과 지상 1층 사무실과 식당, 각종 프로그램실, 2층은 강당, 정보화교육실, 서예실, 강의실 등을 갖췄다. 충주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2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취미생활을 위한 19개 과목 27개 반 1,030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감동의 행복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재활용공예 교육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유재웅)에서는 지난 17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014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 재활용의식증진 및 1-3세대 통합을 위한 재활용 공예 프로그램 - 우리는 Eco젠들만 사업설명회 및 재활용공예 교육을 진행했다.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23명의 어르신들은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지고 지역의 아동들의 재활용 의식 향상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Eco젠들만 은 3월부터 12월까

지 진행되며 재활용공예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1-3세대 재활용공예프로그램, 견학, 자원사랑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과 어르신의 자원재활용의식을 향상시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진행된다. 청주YWCA 장미빛 인생 개강 4월 3일(목) 청주YWCA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집단프로그램 장미빛 인생 을 개강했다.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토요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아동 가족 대상 원예활동

북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창호)은 지난 3월 8일(토)과 22일(토) 2회에 걸쳐 지역 내 거주하는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 11가정을 대상으로 봄맞이 원예활동을 실시했

다. 3월 수업에서는 접시와 같이 넓은 화분을 이용한 디쉬(Dish)가든과 색모래와 투명 유리화분을 이용한 테라리움 가든이 진행되어 참여자들이 꽃과 식물을 보고 만지면서 가족간의 협동심을 증진시키고,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가족공감 토요일은 3월부터 12월까지(방학기간제외) 매월 둘째 날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4월에는 베이커리 교실, 5월에는 핸드페인팅을 이용한 가족 티셔츠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가족 유대감 증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내 저소득 어르신 ‘웃음 활짝’

KB국민은행 용암지점-용암복지관, 사랑의 국수 나누기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진) 경로식당에서는 2014년 3월 29일(토) 사랑의 국수 나누기 활동이 있었다. KB국민은행 용암지점 임직원들이 용암주공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100명에게 따뜻한 국수를 만들어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 용암지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용암지역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일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어르신들을 대

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며, 지역사회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식사대접을 받은 용암복지관 경로당 회장 및 어르신들은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봉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들 너무 친절하고 밝게 대해주셔서 보는 우리까지도 다 밝아지는 기분이다며 감사의 마음

을 전했다. KB국민은행 용암지점은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내 복지관 봉사활동,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주최 및 후원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거주하시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선물 전달과 말벗 나눔을 진행하였고 또한 사랑의 국수나누기 봉사활동도 진행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섬기며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를 과격하여 문화예술체험, 학습, 장애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생각 및 표현 능력을 끌어내고 떨어진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주간보호센터 영화교육과 기타 교육인사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문화여가 체험활동 괴산군장애인복지관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에서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체험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장애인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및 주체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문화산책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산책은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으로 신나는 체험활동!! 이란 주제로 괴산 연풍면에 소재한 괴산조명산재림마을에서 3월 21일 실시했다. 천연색채염(면염색) 활동으로 천연염색에 대한 이해와 체험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로 장애인 자존감 ‘쑥쑥’

음성군장애인복지관, 12월까지 영화교육 운영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병세)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2014년 복지기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 영화교육 이 진행된다. 이번 영화교육에는 주간보호센터 이용자10명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6시30분까지 음성군장애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영화 포스터 패러디, 동영상 만들기, 감정표정촬영, 상황극 표현하기, 다양한 인물 분장 수업 등 이용자 자신들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된다고 한다. 본 사업은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전문 강사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성폭력특별수사대 :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담반)

아동·장애인, 중요 학교폭력, 중요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내에 마련된 성폭력 전문수사팀 피해자 조사 및 의료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반(충북원스톱지원센터)과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담당하는 단속반으로 구성·운영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지원내용

- 여자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24시간 근무하며 피해사레 접수시 상담 및 영장진술녹화(심리전문가 참여)를 통한 피해자 족사
- 청주의료원과 연계하여 피해자 응급치료 및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피해자 의료지원 (성폭력 응급 키트) 실시
- 기타 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법률지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곳곳에서 은밀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합니다.

이젠 아동·장애인 전문수사팀인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알려주세요!

신고 전화

주간 : 043)240-2647(성폭력 특별수사대) 학교폭력 : 117

야간 : 043)272-7117(원스톱지원센터) H·P : 010-4778-3155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복지진단

종합적 장애 판정체계 도입의 배경과 과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2016년부터 현재의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학적 평가와 더불어 근로능력,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렇듯 장애등급제 폐지를 아기한 현행 장애등급판정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함께 종합판정체계 도입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장애유형과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정도를 구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확인하는 기준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내용과 정도이며, 의학적인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의학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는 의사의 장애상태에 대한 소견서가 필요하며 소견서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해당 관할지역의 시 군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장애인으로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현행 장애인등록판정체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장애 개념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통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정의 및 분류체계인 ICF(2001)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전히 의학적 손상만으로 장애를 규정하고 장애 정도를 확정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의학적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장애등급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의 핵심적인 제도의 신청자격 혹은 수급자격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제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표적집단의 선정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새로운 종합적 판정체계 도입을 통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등급제 개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모두에게 긍정적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급 자격 기준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각 서비스 유형별로 최적의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요소를 확정하고, 의학적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장애등급과 함께 다양한 기능적 능력과 사회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 자격 여부와 서비스 제공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윤 상 응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둘째,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과정을 통해 장애 등록 여부와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있는 방식 역시 대상 효능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손상 외에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초점을 둔 기능적 능력 평가 요소를 도입하여 양자간 결합을 통해 장애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장애유형이 15종으로 국한되어, 동일 수준 이상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면 중 주민센터, 종교단체, 시민자원봉사단 등 기업사회공헌 부문 : 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는 점에서 장애유형의 단계적 확대 혹은 장애유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15개 장애유형중에도 최저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장애 등록이 용이한 장애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장애 기준이 엄격하여 장애 등록이 어려운 장애가 존재하는 또 다른 측면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이 점 역시 장애유형간 최저기준의 하향 평준화를 통해 일치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장애 관련 제도에서 필수적 평가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의학적 손상 평가 방법의 일원화에 대한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 정의 및 판정 방법의 단일화 논란을 지속적으로 촉발하는 요인으로서 신청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장애 법령의 적용을 받을 때마다 각각의 장애 판정 과정에서 의학적 검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반복하는 행정적 불편함과 법령간 의학적 손상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초래되는 장애 판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학적 손상 기준의 단일화, 즉 의학적 손상의 수준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백분율로 환산한 장애율을 산정해낼 수 있는 보편적 장애 판정 기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복지프로그램 인증 공모



신청대상
통합 청주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시행중인 자원봉사 단체(동아리)

신청분야
- 고등 및 대학 부문 : 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등
- 주민자원봉사 부문 : 읍 면 중 주민센터, 종교단체, 시민자원봉사단 등
- 기업사회공헌 부문 : 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는 점에서 장애유형의 단계적 확대 혹은 장애유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청요건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프로그램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파급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 타 단체 또는 민관 복지

기관 등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접수안내
접수기간 : 2014. 3. 3(월) ~ 2014. 4. 30(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cjwf2012@hanmail.net)
접수처 : (360-0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4(북문로 2가 116-145)

구비서류 : 인증지원신청서 1부, 인증지원 프로그램 1부 (www.cjwf.net 공지사항 참조)

시상 및 인증규모
- 영역 : 고등 및 대학부문, 주민자원봉사부문, 기업사회공헌부문
- 인증규모(시상금)
최우수상(3명) : 80만원

우수상(3명) : 50만원
장려상(4명) : 30만원
사업운영 및 유의사항
방문인사 : 5. 1 ~ 6. 20(제출된 전체 방문 예정)
역량강화워크숍 : 7. 3(특강, 탐방활동 등)
전문가 심사 : 운영적극성(20%), 지역파급효과(30%), 지역사회기여도(20%), 지역네트워크 활용(20%), 기타(10%)

최종심사결과 : 2014. 7. (예정)
주관 : (재)청주복지재단
협력 :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복지데일리

문의 : 043)222-3813 (더하면 행복한 시민복지프로그램 인증 신청 담당자)

건강상식

척수손상 환자의 방광기능 관리

척수 손상 환자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배뇨 장애이다.

완전 척수 손상 시 체성신경계의 기능이 차단되어 배뇨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잃게 되며, 신장의 기능 저하나 수신증(水腎症)과 같은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

척수 손상 환자에게서 방광의 관리는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척수 손상 환자의 배뇨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척수 손상 환자에서 배뇨 방법은 환자의 증상, 심리적 상태,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깨끗한 간헐적 도뇨(CIC)의 경우 방광용적을 300ml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방광 내압이 낮은 상태로 배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7경수 이하 척수손상 남자에게 효과적인 배뇨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배뇨시 사용되는 1회용 도뇨관 가격이 비싸고, 배뇨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 할 경우 오히려 방광과 신장에 문제가 잘 생기는 것이 단점이다.

둘째, 자가배뇨법은 두드리거나 누르기 등 자극을 가하여 배뇨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대체로 불완전 척수손상인 경우에 선호하는 방법



우 봉 식

청주아이엠재활병원장

이다. 단점으로는 배뇨를 위한 자극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과 복압 상승으로 인한 치질 등이 발생되는 점들이 있다.

셋째, 상시도뇨법은 요도 또는 치골 상부를 통한 상시 도뇨관을 설치하여 독립적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변량을 하루 2000ml 이상만 유지하면 장기적 관리법으로 효과적이다.

그러나 도뇨관이 자주 막히는 점, 요로 감염, 방광 결석, 방광염의 발생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척수 손상 환자의 배뇨법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다.

배뇨법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환자가 배뇨법을 숙지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환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배뇨법을 결정하여 배뇨기능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행성별 건강요법

지난 2월 28일 서울의 세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사회복지사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4건의 자살 사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계층이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근 자살의 원인에 접근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울을 지적합니다.

우울은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 중 단연 으뜸이지요. 허나 이들이 왜 우울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건강과 가난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통계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상황에서의 좌절감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을 선택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복지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3월 5일 통계청이 전국 1만7424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사회조사 자살 및 충동에 대한 이유 통계에 따르면 자살 충

‘도대체, 왜?’



연 현 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39.5%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살 충동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연령별로 20-29세가 28.7%, 30-39세가

42.6%, 40-49세가 51.5%, 50-59세가 52.6%, 60세 이상이 37.4%입니다.

나머지 연령대인 65세 이상의 경우 가장 많은 39.8%가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를 자살 충동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들 역시 그다음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35.1%)을 말했습

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성인 중 거의 대부분이 생활고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현재의 복지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는 것은 문제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긴급 구호 서비스 시스템 같은 것의 운영은 필요합니다. 긴급 구호를 통해 이들은 회복을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현

재 자살 충동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도와 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급할 때 다 물어질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안전한 국가의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작은 희망으로 자살 생각을 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보호를 못받고 이렇게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은 세계 경제 10위 인의 국가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복지사가 행복하고 그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꿔 봅시다.

Happy Check

개선전 호스시설

개선후 금속배관시설

서민층 LP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시행

LPG호스는 노후되거나 파손으로 사고우려가 있어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 사업대상 | LP가스 호스설치 주택(서민층)
- | 사업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무료 설치
- | 문의처 |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 모든 LP가스 사용주택은 2015. 12.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이행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칼럼 Column



김준길

충북사회복지신문 편집고문 겸 주필

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양로원, 노인일자리사업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및 노인고실출입, 환급 등에서는 60세를 노인으로 차우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자들은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5~74세까지는 전기노인으로, 75세 이상부터는 후기노인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한국의 법률상 보편적 노인(실버세대)은 65세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노인세대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 물음에는 개별적 상대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다. 재산이 많고 자녀들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고 있는 일부 노인들은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노인들은 가난, 질병, 고독, 역할상실 등 소위 노인4고(苦)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일제 강점 시대와 6.25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등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오로지 지식 양육과 교육에 올인,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실버세대, 행복들 하십니까?

못한 노인들은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했다.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이 평균 12.4%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그 4배나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3% 보다 노인들은 3.4배나 가난하다. 이런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경제적 빈곤에 고독과 질병이 시달리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증 등에 빠지는 노인도 적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3% 보다 노인들은 3.4배나 가난하다. 이런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경제적 빈곤에 고독과 질병이 시달리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증 등에 빠지는 노인도 적지 않다.

수많은 독거노인 등이 빈곤과 치매 등의 질병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거나 아무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활혼이혼, 노인범죄 마저 증가하고 있다. 한마

다로 우리의 실버세대는 행복하기 어렵고, 걱정 안받지 못한 풍속도를 펼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안정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많은 처방을 들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고, 현실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총복도만 하더라도 실버토포아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9988 행복 나누미 지키미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의 여야 권 예비후보들도 도내 유권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표를 얻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강화 등을 외치며 노심(老心)을 공략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의 길은 여전히 멀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가 시점에서 노인들의 자존감(自尊心) 회복 노력과 자각에 의한 능동적 노년자세를 강조하려 한다. 산일회와 환경의 기적을 이룬 주

인공으로서의 자부심은 갖되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다양성 인정과 유연한 사고로 세상을 대하면서 노인복지문제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일부 노인 단체처럼 편향된 단선적 시각과 자세로 무소불위의 후회병 노릇을 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노인들의 복지향상 주장에 젊은 세대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노인들은 단결된 힘을 발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에 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은퇴자협회(AARP:회원 3500만 명)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선거 전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갖고 노인들을 결과적으로 우등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유권자 연명 구조에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노인 유권자들이 그들을 단단히 흔내 주어야 할 것이다.

시론

장애 '덕분' 인 세상을 위하여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하고 시절, 읍내 유명한 약국집 딸은 뇌성마비였다. 지금이야 뇌성마비 즉, 뇌병변 장애인 줄 알지만 당시에는 약사 아빠가 약을 잘 먹여너무 독한 약을 먹여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무지했던 나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 약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에 정말 크게 아프지 않으면 약을 잘 먹지 않는 지금의 습관은 그때 생긴지도 모르겠다. 그 아이와 헤어져 고등학교에 와서는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같은 반 친구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지적 장애를 앓게 되었다. 문학소녀의 꿈은 사고로 사라졌고,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이 여전히 생생하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일부만 남아 손이 자라지 않은 동기가 있었다. 누구보다 밝고 씩씩했던 그녀의 생활에서 자라지 않은 오른손은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연애도 공부도 잘 했고 다른 한 손으로 누구보다 예쁘게 글씨도 쓰고, 키보드도 치면서 불편함 없이 지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의 문제는 달랐다. 한 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별로 많지 않았다. 사실, 민간사회복지기관 취업은 불가능했다는 표현이 맞았다. 이 친구는 지금 공무원이 되었다.

그나마 입용과정에서 차별이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이들이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진로였는지도 모른다.

며칠 전 내 동기처럼 한 손을 쓸 수 없는 학생이 찾아왔다. 그 또래 학생들이 그렇듯 그 역시 진로가 고민이었다. 스스로가 자신의 손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민간기업이나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겠냐고 묻는 학생에게 선택 대안을 해주지 못했다. 내 친구 중

체·심·수·기



김인수

청주내대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우리집 양반이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요양이 필요할 때에 시설을 알아보던 중 내덕복지관과 인연이 닿아 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었다.

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내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자주 드나들다 보니 나도 남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에 걸쳐 1,000여 시간의 봉사시간이 누적되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힘닿는 데까지는 해야겠다는 생각

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활동분야는 안내데스크 안내 및 상담활동, 내덕복지관 실버 방송국의 아나운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활동보조, 급식봉사, 밀반찬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혼자 사는 살림이지만 집안 돌보라, 바쁜 시간 쪼개며 정성없이 뛰어들어 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봉사해주게 된다.

우리 복지관에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관내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일주일에 3회 생방송 또는 녹음 방송을 내보내는데, 원고를 읽다 보면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억양이 매끄럽지 못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다.

내가 이 복지관과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농사일에 파묻혀 후투성이 촌로 지나지 않았을텐데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술, 기체조, 탁구, 난타, 가곡 등을 배우다 보면 저절로 힘도 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비록 내가 남보다 더 하는 것도, 더 가진 것도 없지만 남을 위해 일하며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눈다는 생각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행복

을 내보내는데, 원고를 읽다 보면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억양이 매끄럽지 못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다.

내가 이 복지관과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농사일에 파묻혀 후투성이 촌로 지나지 않았을텐데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술, 기체조, 탁구, 난타, 가곡 등을 배우다 보면 저절로 힘도 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비록 내가 남보다 더 하는 것도, 더 가진 것도 없지만 남을 위해 일하며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눈다는 생각

을 왜 하지 못했는지.

흔히들 남에게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가야 할 빛이라고 생각하면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며 참으로 행복한 일이요, 풍요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내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에 오래도록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며 미력하나마 내 주변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을 뿐이다.

체·심·수·기



김정숙

다사랑봉사단 자원봉사자

어느 날 봉사 회의하는데 민요를 구성지에 잘 부르는 분이 오셔서 자기는 민요하는 사람인데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두 답을 기다려 민요교실이 문을 열었는데 남도민요라 쉽지 않았다. 몇 달 뒤 그만둘까도 생각해 봤지만 회장으로 선출 되었으니, 그만둘 수도 없고 민요는 악보가 없고 박자로만 외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니 조금씩 풍월을 읊게 되었고 우암시니어클럽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민요봉사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목요일에 가기로 해놓고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할지려 공연을 준비한 덕에 첫 번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지금은 시 복지관이나 여러곳에서 민요 봉사를 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더더욱 어르신들께서 정이 들어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다. 레크리에이션, 웃음 유머, 퀴즈 등을 다양하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더욱 좋아하신다.

민요를 젊은 세대들이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생경하고 민요는 어르신들과 글방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웃음을 드리기 위해 민요를 우리들 생활에 적용하여 개사해 부르면서 맘껏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봉사의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

민요를 배우고 나서

다른 프로그램과 달라서 인원이 적으면 적은데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좋고, 우암동 경로 잔치에는 270여분 모시고 공연을 맞춰서 하여 MBC에 2회 출현해 이제는 방송을 보신 분들이 민요하는 사람으로 반갑게 인사하시니 이 또한 기쁨이 아니겠는가.

다사랑봉사단을 16년간 이끌어 오고 있지만 민요봉사는 5년이 넘었다. 봉사는 결국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민요를 배우고 나서

다른 프로그램과 달라서 인원이 적으면 적은데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좋고, 우암동 경로 잔치에는 270여분 모시고 공연을 맞춰서 하여 MBC에 2회 출현해 이제는 방송을 보신 분들이 민요하는 사람으로 반갑게 인사하시니 이 또한 기쁨이 아니겠는가.

다사랑봉사단을 16년간 이끌어 오고 있지만 민요봉사는 5년이 넘었다. 봉사는 결국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9평? 33평? 24평?

우리는 공평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가능한 공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는 충북도내 유일 사회복지 중심으로 설계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으로 '주택체험관', '휠체어체험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체험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디자인 체험관 UD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고령자를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물건과 기구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모두가 '같이' 할게하는 '가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디자인이며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용권을 찾아주는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입니다.

체험가능시간 월~금 9시~18시 (주말, 공휴일제외) 체험신청 및 문의사항 충청종합사회복지센터 ☎043-239-8900 www.043w.or.kr

지역단신

장애청소년 대상 직업준비교실 진행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관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준비교실을 진행한다.

상당구, 복지사각지대에 비상 전달

충주시 상당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조손 한부모 가정에게 밥상을 전달했다.

이중군 상당구청장은 9일 우암동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5가구를 방문해 상당구청 구내식당 조리원들이 자치단체 정성껏 마련한 행복한 밥상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당구는 저소득층의 자살사건 등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복지사각지대에 적극 반영코자 매달 상당구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활용,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동별로 전달하고 있다.

행복한 밥상 전달은 지난 3월 중앙동과 성안동에 사는 소외계층에 국과 반찬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9일 현재 15가구가 밥상을 받았으며 1년간 65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구는 지난해에도 홀몸노인 65가구에 대해 행복한 밥상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바 있다.

이중군 상당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복지사각지대 적극 반영코자 행복한 밥상 전달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

신속대처로 소중한 생명 살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신속한 출동으로 자살기도 50대 남성의 생명을 구해 귀감이 되고 있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8시에 시야라지인 A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후 연락이 끊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내 일제 무전 수배를 실시, 112 타격대, 읍내

지구대 112순찰차 2대, 산산자물범방대원 등 총 20여명의 병력이 보은읍내 일대를 수색했다.

수색에 성과가 보이지 않던 중 읍내 지구대 정문길 경위와 박기홍 경사가 자살의심자 A씨가 보은읍 소재 환경지원이라는 사실을 파악, 회사 주차장 부근을 집중 수색 중 A씨 소유 차량을 발견했다.

이에 두 경찰은 신속히 차량을 샅샅이 훑고 먹고 번개탄을 피워놓은채 누워있던 A씨를 발견,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하여 소중한 한 생명을 구했다.

학교발전기금 시령의 장학금 전달

지역적인 육성을 위한 학교발전기금과 지역 학생들에게 사랑의 장학금이 각각 전달됐다.

청원 오창 농업(조합장 강신택)은 8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오창고와 양청중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오창 농업은 지난 2012년부터 청원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청원군 남성면 송운장학회(회장 임현석 남성면장)도 같은 날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회는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학생 8명에게 50만원씩과 남성초 8명의 학생들에게 10만원씩 16명에게 4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송운장학회는 남성면 현암리 출신 송복지부총재, 청주 청원 유도회장을 역임한 고(故) 송운 김일경 선생이 사재 1억원을 출연해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269명에게 1억3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했다.

노인복지 향상 팔 걷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중증장애 노인복지 향상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억4천여만원을 들여 경로당 105개소에 에어컨 23대, 냉방고 42대 등 냉방기구 65대와 안마의자, 좌식차이클 등 건강증진기구를 보급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9개소에 불과하던 경로당 에어컨은 금년 1분기기준 23개소에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냉방기구가 완비된 경로당은 72개소(67%)로 대폭 늘어났다.

군은 이중 경로당 68곳을 무더위 쉼터 로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등록경로당 105곳에 각각 7, 8월을 5만원씩의 냉방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안마의자 37대, 좌식차이클 3대 등 40대의 건강증진기구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폭염 시나 장마철에 실내운동으로 건강한 여

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현대백화점 충청점 파랑새봉사단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진)에서는 2014년 4월 8일(화) 현대백화점 충청점 파랑새봉사단으로부터 지역 내 인지저하기능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10분을 모시고 상당산성으로 봄 나들이를 함께 하며 점심식사를 했다.

현대백화점 충청점 파랑새봉사단은 오늘 뿐만 아니라 격월 1회씩 지속적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기쁘하고 자원봉사단이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은군 복지사각지대 156가구 발굴

보은군이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결과 모두 156가구를 발굴했다. 이를 위해 보은군은 복지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장과 방장,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 SOS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 기간 156가구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한 가운데 93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 등으로 신청했다.

또 화재로 주택을 잃고 마을회관에 생활하던 독거노인에게 긴급지원 차원에서 생계비 39만원을 보태주는 등 17가구에 지원을 마쳤다.

이와 함께 46가구는 추가 조사를 거쳐 기초수급자와 긴급지원 등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지원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복지사각지대 홍보로 이와 관련한 각종 신청 건이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시행

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등으로 취업 부모의 양육공백 발생 시 당일 이용 가능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4~6월 시범 시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교육 등 일정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모두 18명의 전담 긴급돌보미를 지정 배치해 당일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내에서는 충주시 건강가정지

자원봉사자모집

청주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실 자원봉사 관리센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요청인원: 5명 활동기간: 2.14 ~ 12.31 전화번호: 043-216-4004

서류정리 및 행정보조 관리센터: 충주가정법률상담소 요청인원: 2명 활동기간: 3.14 ~ 12.31 전화번호: 043-257-0088

청소년 문화예술 재능나눔 봉사단 해피비너스 관리센터: 충주시청소년수련관 요청인원: 30명 활동기간: 3.08 ~ 10.04 전화번호: 043-261-0714

요리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외국인사랑나눔지원센터 요청인원: 3명 활동기간: 3.11 ~ 12.31 전화번호: 070-8782-3699

제천시

아동·청소년 공방방 학습지도 자원봉사 관리센터: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요청인원: 4명 활동기간: 2.25 ~ 12.31 전화번호: 043-644-2983

재능기부 및 교육봉사 관리센터: 덕산지역아동센터 요청인원: 10명 활동기간: 2.14 ~ 10.29 전화번호: 070-8100-4727

청원군

2014년 디딤터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디딤터 요청인원: 10명

활동기간: 1.28 ~ 5.31 전화번호: 043-269-0145

옥천군

멘토링 지원사업(활동비 지급) 관리센터: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인원: 5명 활동기간: 3.07 ~ 6.30 전화번호: 043-731-3686

영동군

목욕 자원봉사자 모집(남) 관리센터: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요청인원: 3명 활동기간: 4.01 ~ 12.31 전화번호: 043-743-1500

1004자원봉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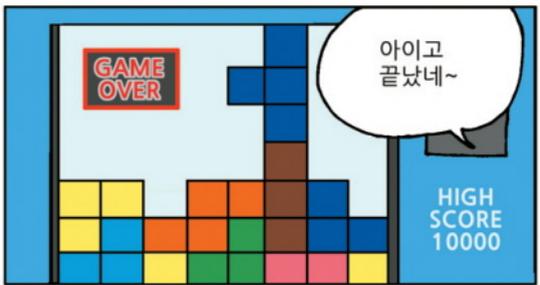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0명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복 / 지 / 만 / 평

테트리스 게임

이창신 www.bokmani.com



한쪽만 쌓이면 끝입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구 분, 모금액, 비 고. Total amount: 8,262,495,067원.

Table with 3 columns: 배분 내용, 배분액, 비고. Total amount: 10,952,705,163원.

2013년 충북도민들의 사랑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북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아래와 같이 '2013년 모금·배분사업'을 수행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복지 8억9천6백만원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의식변화교육,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33억3천6백만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보호와 양육을 위해 영유아통합지원,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보호청소년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과 교육, 아동보호·양육, 의료·건강·여가·문화, 청소년 성장 등 다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복지 1억9천1백만원

각 가정의 행복이 모여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이룬다는 믿음으로 여성과 가족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육아문제지원을 통해 여성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18억2천8백만원

삶의 경험과 연륜을 지닌 어르신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황혼기의 삶을 풍요롭게 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역량강화 및 인식개선, 문화 활동 지원은 물론 농촌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지원, 의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45억5천3백만원

지역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돕고 각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찾아내 주민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및 산간벽지 등 복지 소외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통해 새로운 이웃사촌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